미사 집전으로 "와서 아침을 들라"(요한 21,12)고 초대하시는 신부님을 맞으며 본원장의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최재순 수녀입니다. 처음 본원장 사도직에 파견 받고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다양한 수도회 행사를 치를 본원의 역할과, 구성원이 많은 공동체 수녀님들에 대한 책임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본원 성당입구에 걸려있는 **"자비롭고 생동하는 공동체를 삶으로 우리는 하느님의 계약적 신의를 증거한다"**는 전체총회 비전 선언문을 읽는 순간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고, 아브라함처럼 "야훼 이레" (창22,14)라는 은총을 깨달으며 용기를 얻었습니다.

본원공동체는 관구장과 이사수녀님들, 내부사도직 수녀님들, 후반기 종신서원 준비반 수녀님들과 양성기 수녀님들까지 모두 서른 명이 넘습니다. 서로 다른 책임을 맡고 있지만 필요에 따라 협력하며 복음의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매월 하우스 미팅 때 공동체 일을 충분히 토의하고 합의하여, 힘든 일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또 여러 사도직 현장에서 지친 수녀님들의 몸과 마음과 정신을 어머니 품 같은 본원공동체에서 회복하도록 서로 보듬어주며, 자비롭고 생동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여정에 있습니다

본원공동체 구성원은 함께하는 여정에서 체험한 풍요로움을 세상과 나누고 있습니다. 매월 첫 토요일, 젊은이들을 위한 '고요 속의 현존' 떼제 기도는 13년 넘게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악기를 연주해준 봉사자들과 40여명의 남녀 청년들이 기도에 참석하며, 중.고등학생에게도 하느님을 만날 수 있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찾는 젊은이들은 기도 분위기만 아니라 수녀님들이 만든 간식에도 매력을 느낍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희생자 가족들이 사고현장인 진도 팽목항에서 서울광장까지 도보순례를 할 때 저희가 함께 걸었을 뿐 아니라, 가족들께 수녀원 손님방을 내어드리고 음식을 대접하면서 예수님의 이웃사랑을 글자 그대로 실천하기도 했습니다.

광주와 전주지역 본당 수녀님들은 매월 본원에서 하느님 안에 더 깊이 머물며 화해성사의 은총을 얻고 피정을 합니다. 젊은이, 씨튼가족, 수녀회 은인들께는 본원 전례 안에서 아름다운 기도와 마더 씨튼의 어머니 영성을 접할 수 있도록 문을 열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1987년 사랑의 씨튼 수녀회에 입회하여 여러 본당 소임을 하고 씨튼힐 대학에서 공부했으며, 수녀회 경제개발과 선교모금 일을 했습니다. 지금은 본원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하도록 본원장으로 파견하신 하느님께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하느님의 섭리가 얼마나 달콤한가"를 맛보신 마더 씨튼처럼 저도 그 단맛을 느끼며 오늘을 영원처럼 봉헌의 기도를 드립니다.

I begin every morning welcoming the priest who comes to the Provincial House to celebrate Mass. He calls our sisters to accept Jesus' invitation to "Come! Have breakfast!" (John 21:12)
Hello, Sisters! My name is Choi, Jae Soon, and I am the sister servant of the Provincial House in Korea. When I was missioned to this position, I felt fear because so many events and celebrations are held here and a sense of responsibility for the sisters. However, my fear began to disappear when I saw the words hanging on the wall at the entrance of the Chapel. The words are the General Chapter Vision Statement. "By living vibrant compassionate community, we witness God's covenantal fidelity." I took courage to move forward like Abraham reminded of the grace of God. "So Abraham went and took the ram…named that place Yahweh-yireh" (Genesis 22:14)

More than thirty people live in the Provincial House: the provincial and her councilors, internal ministry sisters, those preparing for perpetual vows, and sisters in early formation periods live together. The roles and ministries of our sisters are different; however, through collaboration they share the joy of the Gospel. To support, learn, discuss, and communicate better, a house meeting is held every month. Sisters come and stay in the Provincial House for recuperation of their physical and spiritual health. For them, the sisters in the Provincial House try to provide encouragement and a mother's love as a compassionate and vibrant community. Many prayer meetings and gatherings are provided to people who come to visit such as the "Presence in Silence," Taize prayer meeting on the first Saturday of every month. It has been offered for young people for over thirteen years, many volunteers, musicians and young people come and meet God through prayer. It is now open to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too.
The sisters in the Provincial House strive to act in solidarity with those who mourn and suffer in the world. Since the "2014 Ferry Disaster" (Seweol Ferry sank and 300 people died, mostly high school students.) the Sisters have participated in a pilgrimage with many families and friends of the victims who demand a government inquiry into the sinking.
The Provincial House is the place where our Parish Ministry sisters, Seton Family members, young Catholics, and benefactors experience God's presence and the Spirituality of Mother Seton through retreat and prayer meetings.

I entered the community in 1987. I've worked in parishes, studied at Seton Hill University, and worked in the Development / Foreign Mission Office of the Korean Province. I am so grateful to God who sent me to the Provincial House to serve our sisters. Like Mother Seton experienced the sweetness of God's providence through her life, I pray to God that I might have the same journey as our founder.